DAOL 다올투자증권

Market Weekly

check Macro ME Event up!

2026년 4월 2주차

리서치본부 투자전략팀

조병현 투자전략 | bhcho@daolfn.com
박영찬 연구원 | pychan@daolfn.com

Ⅰ. Weekly Review *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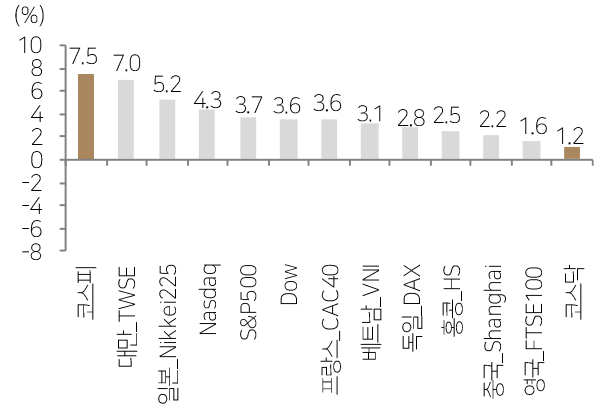
Ⅱ. 경제지표 Preview *3p*

Ⅲ. 이벤트 일정 & 증시 동향 및 전망 *4p*

Ⅳ. Key Chart & 핵심지표 *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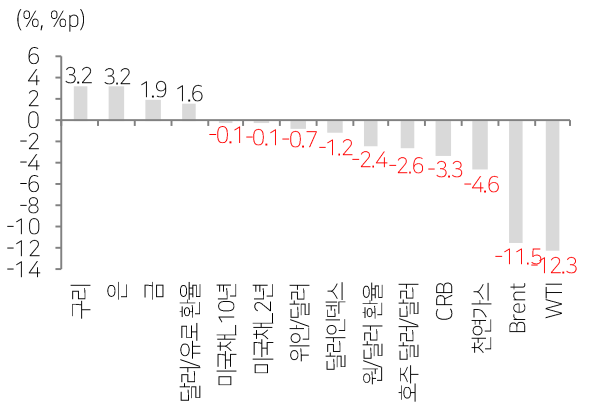
I . Weekly Review

글로벌 증시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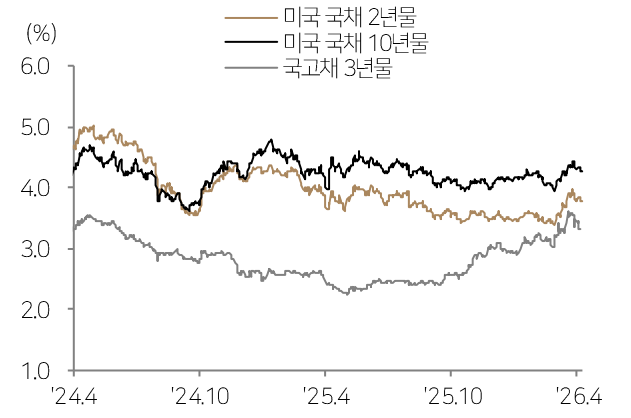
Note: 수익률은 4/3일 대비 4/9일 종가 기준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글로벌 FICC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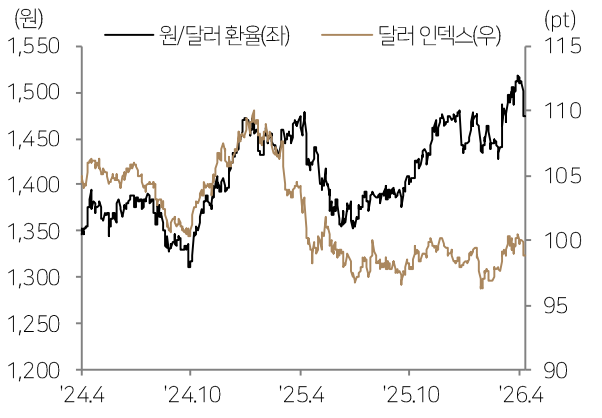
Note: 수익률은 4/3일 대비 4/9일 종가 기준. 미국 국채는 %p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채권 수익률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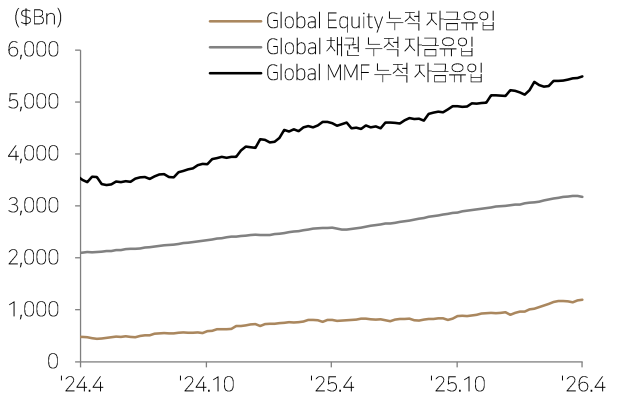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다올투자증권

달러 인덱스 및 원/달러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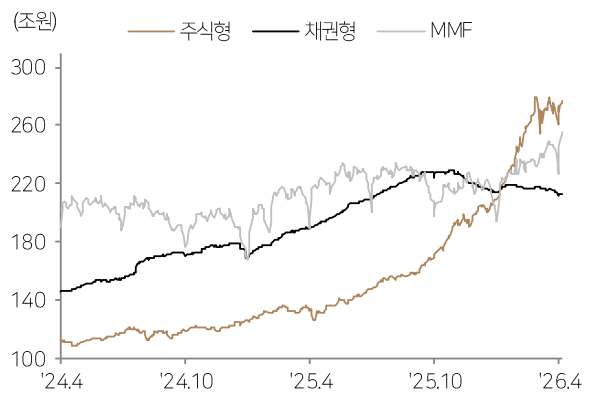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글로벌 펀드 플로우



Source: Refinitiv, 다올투자증권

국내 자금동향



Source: Check Expert, 다올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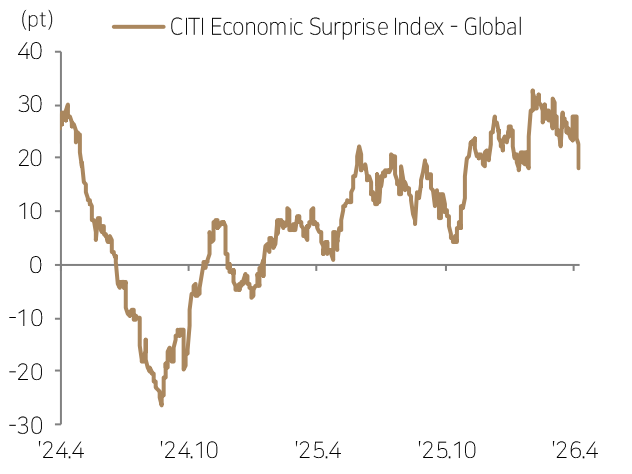
Ⅱ. 경제지표 Preview

- 전쟁과 인플레이션의 부담 속에서도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 매크로 모멘텀은 증시의 하방 부담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연초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의 한국 수출은 양호한 기업 실적으로 반영되는 양상. 지정학적 리스크의 장기화는 멀티플 영역에서 작용하고 있던 부담을 펀더멘털 영역으로 전이시킬 수 있는 만큼 전쟁 상황 속에서 한국 수출에 둔화 압력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
- 당분간 물가지표들의 중요성은 높게 유지될 개연성이 높음. 전쟁 이전부터 미국의 생산자 물가와 수입물가는 상승 조짐을 보이면서 물가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하고 있었던 상황. 3월 물가지표들의 급등은 불가피해 보이며, 시장이 어느정도 수준까지 감내하는지 테스트해 보는 구간이 될 수 있을 것

일자	국가/지역	일정 및 이벤트	단위	예상치	이전치
2026-04-13	한국	4월 ~10일까지 수출/입	%yoy	-	55.6/21.7
2026-04-13	미국	3월 기존주택매매	백만건	4.08	4.09
2026-04-14	미국	3월 NFIB 중소기업 낙관지수	Index	-	98.8
2026-04-14	미국	3월 생산자물가지수 최종수요	%mom	1.2	0.7
2026-04-14	미국	3월 근원 생산자물가지수 최종수요	%mom	0.5	0.5
2026-04-14	중국	3월 수출/입	%yoy	10.0/13.8	39.6/13.8
2026-04-15	한국	3월 수출/입물가지수	%yoy	-/-	10.7/1.2
2026-04-15	한국	3월 실업률	%	-	2.9
2026-04-16	중국	1분기 경제성장률	%yoy	4.8	4.5
2026-04-16	중국	3월 광공업 생산	%yoy	5.3	-
2026-04-16	중국	3월 소매판매	%yoy	2.3	-
2026-04-16	유로존	3월(최종) 소비자물가지수	%yoy	2.5	2.5
2026-04-16	미국	3월 광공업 생산	%mom	0.1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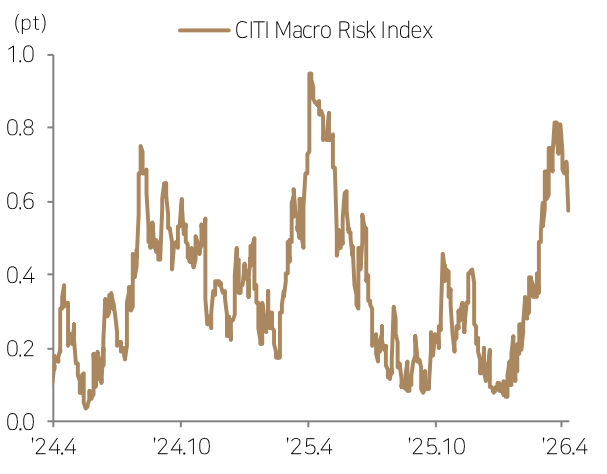
Note: 경제지표 발표일정은 한국시간 기준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경제 서프라이즈 인덱스 흐름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흐름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III. 이벤트 일정 & 증시 동향 및 전망

일자	국가/지역	중요도	일정 및 이벤트	내용
4/13	글로벌	중	OPEC 월간 원유시장보고서	▪ 3월 11일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글로벌 원유 수요는 전년대비 140만 배럴 증가한 1억 653만 배럴로 전망, 비OECD 수요 증가가 견인 요인 ▪ 3월 보고서는 전쟁 발발 직후 작성되어 분쟁 영향이 제한적으로만 반영됐고, 4월 보고서부터 전쟁 영향이 본격 반영될 것으로 예상. 수요/공급 전망치 조정 폭과 OPEC 원유 기준가 급등 반영 여부도 함께 확인할 필요
4/13 ~18	글로벌	중	IMF/WB 연례 춘계 회의	▪ IMF/WB 정례 회의에서 WEO 발표 예정. WEO는 분기별로 업데이트되나, 4월과 10월이 본 보고서. 성장률 전망치 조정이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으로, 전쟁이 성장률 저하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IMF 측의 추정치를 점검할 필요 ▪ 더불어 최근 리스크 보고서 등을 통해 자주 언급되고 있는 양극화나 보호무역, 고용 둔화, 저성장, AI 침투의 영향력, 사모신용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판단도 심화되었는지 여부 확인할 필요
4/15	미국	중	연준 베이지북 공개	▪ 연준 베이지북 공개 예정. 3월 4일에 공개된 베이지북에서는 전반적인 경제 전망이 낙관적이었으며, 향후 몇 개월 동안도 완만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 안정적인 고용 수준과 완만하게 상승 중인 물가 내용이 반영됨. 이번 베이지북에는 최근 둔화된 고용과 함께 IEEPA 위법에 대한 내용과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흐름도 영향을 미쳤을 것. 관련된 연준의 인식에 주목해 볼 필요

Note: 이벤트 발표일정은 한국 시간 기준
Source: 다올투자증권

일자	내용
금주 (04/03~04/09) 증시 동향	▪ KOSPI(7.5%), KOSDAQ(1.2%) 상승. KOSPI는 건설,건축관련(+20.3%), 반도체(+11.1%), IT하드웨어(+10.9%)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미디어,교육(-3.4%) 업종 하락. 주 초반 삼성전자 실적 기대 유입으로 코스피 상승 출발. 이후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협상이 타결되며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와 맞물려 코스피 급등, 장중 5,900선 돌파. 다만,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및 중동 지역 내 상호 공격 보도되며 불완전한 휴전에 대한 경계심리 재차 확대, 상승폭 일부 반납하며 5,700대 마감 ▪ DOW(+3.6%), S&P500(+3.7%), NASDAQ(+4.3%) 상승. 주 초반 미국·이란 종전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두고 기대감 유입되며 3대 지수 강보합 출발. 이후 양 국가가 2주간 휴전에 합의하자 투자심리 회복, 위험자산 선호 심리 살아나며 증시 강세. 다만, 휴전 합의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및 이란의 걸프국 공격 이어지며 불확실성 잔재, 뉴스 플로우에 따른 변동성장 전개
차주 (04/13~04/17) 증시 전망	▪ 주중 이스라엘의 군사활동처럼 돌발 변수 등장 가능성은 잔존하나, 큰 틀에서 상황을 봉합하기 위한 경로 상에 위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임. 한국 증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가 유효한 구간인 만큼 낮은 밸류에이션과 강한 이익 모멘텀이라는 두 명제가 갖춰진 상황. 물론 상황이 일단락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후적인 부담들도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고(인플레이션과 금리). 이미 인플레이션 부담이 가시화되는 상황 하에서 고유가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질 수록 멀티플과 이익에 대한 기대가 다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2분기 이후 유의해야 할 부분 ▪ 26년 이익만이 아니라 27년 이익 전망치도 탄력적으로 상향 중. KOSPI의 27년 이익 증가율은 2월말 +13%에서 현재 +17.5%로 상승. 이익에 대한 관심이 제고될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에서 26년과 27년 이익 기대감이 모두 개선되고 있는 업종들로는 반도체, IT H/W, 증권, 기계, 2차전지 등이 있음

Note: 수익률은 전주 금요일 종가 대비 금주 목요일 종가 기준
Source: 다올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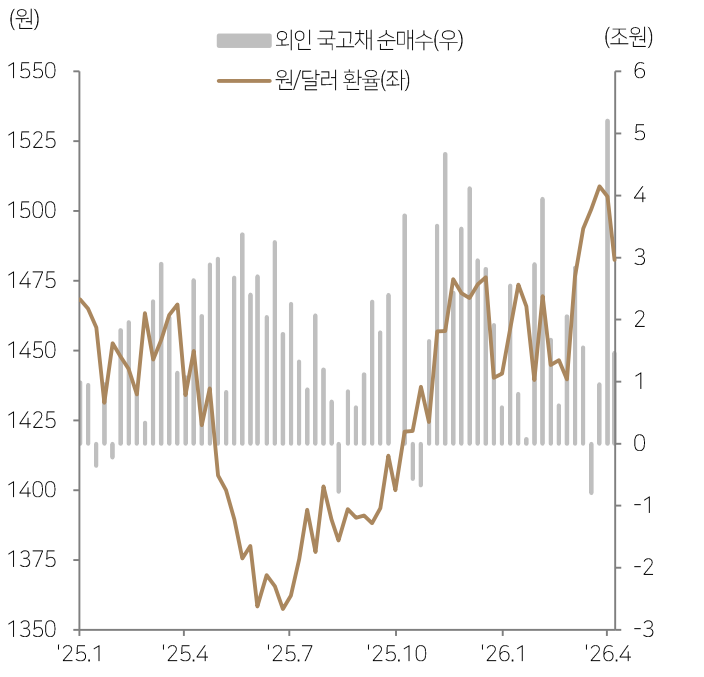
Ⅳ. Key Chart & 핵심지표

글로벌 물류망에 가해지는 압박이 심화 중. 이는 시차를 두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을 가중 시킬 여지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 뉴욕 연준은 2022년 5월부터 Global Supply Chain Pressure Index (글로벌 공급망 압박지수, GSCPI)를 월간으로 발표. 이는 해운/항공 물류 비용 데이터와 PMI 등 공급 측 지표들을 조합한 뒤, 장기 평균을 0으로 설정하고 (+)값이면 글로벌 공급망 왜곡 및 압력이 발생한 상태, (-)값이면 완화적인 상태로 판단
- 동 데이터는 3월 수치까지 나왔는데, 지난 연말 이후 양수 영역에 진입하고 우상향 흐름. 글로벌 물류가 압박 받는 국면에 진입했음을 시사.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상징적인 이벤트가 있었음에도 상승 폭이 미미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나, 4월초에도 물류 비용 관련 지표들의 상승세가 이어졌음을 감안하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농후
- 한가지 더 유의할 부분은 물류 부담이 정점을 통과하고 나서도 물가 안정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 그림 상으로는 공급망 지수의 정점 통과 후 최소 2분기 이후 정점이 출현하는 것으로 보이며, 교차상관계수로는 3개 분기에서 가장 강한 상관관계가 도출
-

WGBI 편입 시작에 따른 외국인 채권 순매수 자금 유입. 대외 리스크 완화와 중첩될 경우 환율 안정에 긍정적 영향 기대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 4월부터 WGBI 한국물 편입이 시작. 지난 해 10월 리뷰 당시 한국 편입비중이 2.08%였으나 주 중 공개된 국가 분류 보고서 상 1.75%로 다소 감소. 한국의 펀더멘털 악화 요인보다는 환율 변화 영향이 컸던 것으로 추정. 비중은 다소 줄었으나, 4월에서 11월까지 약 8개월에 걸쳐 약 65조원 가량이 유입(동 지수 추종 자금 2.5조$, 환율 1,480원 가정 시)될 수 있음
- 해당 이벤트를 통해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은 국고채 금리의 상단 제약 및 원/달러 환율의 안정. 외국인 투자자들의 환 헷지 이슈 등을 감안하면 환율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국고금리의 상단 제약에 도움을 주는 것 만으로도 환율 안정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
- 최근 외국인 국채 순매수 추이를 보면, 수급상 의미있는 모습이 출현. 3월 30일부터 8일까지 외국인은 6.8조원 국채 순매수를 진행. 지난 한주만 5.2조원이 집중. 최근 3년간 주간 순매수 평균이 1.28조원이었음을 감안하면 매수 강도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여짐

www.daolfn.com

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 포스트타워

본사영업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 포스트타워 27층

DAOL 다올투자증권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나, 제공되는 정보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당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의사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투자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분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 복제, 인용, 변형할 수 없습니다.